대만 자재공덕회, 지진 생존자 구호 총력

자재공덕회 이스탄불 지부에 재난구조조정센터 긴급 설립
난민 구호 필요 물자들 전달
의료 구호단 파견도 이어져

김민재 객원기자


자원 봉사자들이 지진 피해로 추위에 노출된 튀르키예 난민에게 보낼 업사이클링 담요를 포장하고 있다. 사진출처=자재공덕회

대만에 본원을 둔 세계적인 자선단체이자 인도주의 단체인 '자재공덕회'가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구호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2월 10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은 자재공덕회의 튀르키예 지진 생존자 구호활동 소식을 전했다.

2월 6일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남부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부 지역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자재공덕회는 이스탄불 지부에 재난구조조정센터를 긴급설립, 본부에 기부를 요청하고 긴급히 난민 구호에 필요한 물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재공덕회는 공식성명을 통해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로 인한 사상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전세계 자원봉사자들에게 모금활동과 기도를 독려했다. 지진이 발생한 다음 날인 2월 7일 23개국의 자원봉사자들이 자재공덕회의 정기 기도회에 참여해 "생존자 및 구조자의 무사안녕을 빌며 난민 구호성금을 모금했다"고 발표했다.

자재공덕회는 난민 성금 및 구호품 기부를 받기 위해 타이베이의 튀르키예 무역 사무소와 협력을 시작했다. 현지에서 지진 생존자들에게 나눠줄 음식과 생필품 등을 구입해 전달했으며,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존자들의 보온 담요가 부족해 경쟁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8,148개의 업사이클링 담요를 기증해 무역사무소 대표에게 공식 전달했다. 대만 자재공덕회 본원의 의료 구호단도 구호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를 위해 튀르키예로 출발할 준비를 마쳤다.

자재공덕회 관계자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충격과 슬픔에 빠진 분들이 하루 속히 안정되길 바라며 신속한 구조 작업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되길 기도한다. 전 세계 기부자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오는 28일까지 100만 달러(한화 약 13억)에 이르는 금액을 맞춰 신속히 피해 복구지원에 지원할 수 있으리라 본다. 여러분의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며 기부를 독려했다.

2월 10일 현재 튀르키예 지진과 여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 3천여 명을 넘어섰다. 구조대원들은 7일 연속 생존자 수색작업을 계속했지만, 얼어붙은 기온 속에서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은 희미해지고 있다.

美, 미네소타 사찰 전통무용 강좌 신설

불교전통의 의식무서 기원
입소문 퍼지며 현지 관심도


와타낙 무용단이 캄보디아 전통 무용 강좌 전 리허설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AP통신

지난 2월 11일 미국의 'AP통신'은 미네소타주에 소재한 캄보디아 불교사원에서 열린 캄보디아 전통무용 강좌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의 전통무용은 불교의 의식무에서 기원된 것으로 전해 캄보디아 불교문화를 전하는 또 다른 방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중북부에 위치한 미네소타주의 캄보디아 사원 '왓 무니소타람'에서 불교와 캄보디아 전통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무용 강좌가 신설됐다. 해당 강좌는 종교와 관계없이 신청 할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또한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에서도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모집을 마쳤다.

왓 무니소타람 사원은 1975년부터 1979년 사이에 발생한 크메르 루주의 대량 학살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캄보디아 난민들이 모여 설립한 불교사원이다. 이 사원은 테라와다 교단에 속해 있으며, 난민들과 현지 불자들에게 영적인 구심점으로 오랫동안 자리잡아 왔다.

캄보디아 전통무용 강좌를 맡은 와타낙 무용단 단장 사브리나 소크는 "캄보디아 난민들은 망명생활 속에서도 캄보디아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했다. 불교와 캄보디아 전통이 결합된 전통무용의 역사는 1,00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왕실과 불교사원에서 공연되던 '신성한 춤'"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무용강사 개럿 소어는 "캄보디아의 전통무용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여겨졌다. 공연하는 그 순간 공연자의 육신은 '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나 천신의 화신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속한 와타낙 무용단의 주된 목표는 '전통 무용의 보전'이다.

왓 무니소타람의 신도인 소피아 소어는 "아이들이 전통무용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종교를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증거"라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무용으로 표현되는 것과 많은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태국정부, 스님들에 응급처지 훈련교육

5개월 간 1만 여 스님들 교육
응급의료 사각지대 감소 기대


2018년, 사고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중인 스님들. 사진출처=넥스트 샤크

태국 공중보건부와 산하 직속 의료연구원은 올해 태국불교의 최고 지도자인 상가라자 암바로 스님의 96세 생일을 기념하여 전국의 스님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월 7일, 태국의 '방콕 포스트'는 이번 캠페인이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감소하기 위한 불교계와의 공동활동이라고 보도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수상은 7일 기자회견에서 "오는 6월 26일, 태국 불교의 가장 큰 어른인 상가라자에 계신 암바로 스님의 96세 생신을 맞이하여 국가적인 기념행사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각 사찰의 스님들에게 응급처치 훈련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누띤 차른위라꿀 태국 보건부 장관은 "최근 조사결과 태국스님들의 28.5%가 암, 호흡기 감염, 당뇨병, 고혈압 및 신장 문제와 같은 비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사찰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병인 등이 없어 병원 치료 후에도 적절한 케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중한 사찰이 응급의료의 사각지대가 됐다"며 훈련을 제공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아누띤 장관은 "현재 보건부는 '하나의 사찰에 한 명의 간호승'이라는 구호아래 응급처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태국 전체 승가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첫 캠페인은 지난 6일 방콕에 소재한 왓 쁘라 스리 마하탓 사원에서 진행됐다. 태국 전국에서 찾아온 수백명의 스님들에게 보건부 산하 의료원 의사들의 응급처치 시범과 강연이 진행됐다. 강연내용에는 심폐소생술과 심장제세동기 사용법도 포함됐으며 상가라자 암바로 스님과 아누띤 장관이 참관했다.

현재 태국 보건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5개월간의 훈련과정으로 전국 9,360명의 스님들에게 응급처치 기술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태국 보건부 의료원의 위차이 띠엔타보른 원장은 "전국 각 사찰마다 적어도 한 명은 간호승으로 활동하는 스님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몸이 불편한 스님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부처님께서 병든 출가자는 결코 혼자 두어선 안된다. 의료기술과 같은 기술은 출가와 재가 모두에 선한 행위라고 가르치셨다"며 교육의 내용이 단순한 의료 캠페인이 아닌 사찰에 상주하는 출가자와 방문하는 재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태국에서는 지난 2018년,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응급의료 훈련을 받았던 스님들이 심폐소생술로 사람들을 구조한 사례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재주목 받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日, 사찰만 노린 절도범죄 줄이어

요사채까지 침입…동일범 소행추정



열쇠가 걸린 부분만 깨고 요사채와 법당에 침입한 범죄흔적. 사진출처=제로테레 뉴스

일본에서 사찰만을 노린 연쇄 절도범죄가 일어나 교계 안팎의 우려를 사고 있다. 2월 10일 일본의 '제로테레뉴스'는 보안이 취약한 사찰만을 노린 범죄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야마나시 현에서 최근 5개소의 사찰이 연쇄적으로 금품 등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측은 "범인은 지난 6일과 7일에 걸쳐 사람이 드문 새벽녘을 노려 유리문의 열쇠가 잠긴 부분만 깨고서 사찰의 요사채나 본당을 침입해 금전과 귀중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사찰들은 모두 방범 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큰 역할을 하지 못했음도 드러났다. 언론들은 "범인은 교묘하게 자물쇠가 걸린 부분만을 유리칼 등을 사용해 구멍을 내고 손을 넣어 안에서 자물쇠를 여는 것으로 경보울림을 해제했다"며 방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거나, 사찰의 구조를 파악한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해내용 중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며, 도난당한 귀중품과 금전도 고액은 아닌 것으로 전했다. 법당을 침입당한 사찰의 경우 문화재나 불구 등에 대한 피해도 없는 것으로 전해 범인은 금전만을 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측은 "하룻밤 새에 5곳의 사찰을 노렸다는 점에서 사찰의 보안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계획범죄"라며 지역 사찰들의 주의를 요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지역소도시를 중심으로 상주하는 스님이나 관리인이 없는 무인 사찰이 급증가함에 따라 사찰을 노린 절도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찰의 경우 대부분 방범 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오작동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현재 일본에서 사찰을 노린 범죄는 성보문화재를 노린 절도사건이 주를 이루며, 심지어 지역문화재로 지정돼 정기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성보문화재가 도난당해 미술품 경매에서 환수하는 등의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배철완	T 053-985-9190	H 010-6780-9190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문화사업단	구광국	T 02-2004-8213	H 010-3048-400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